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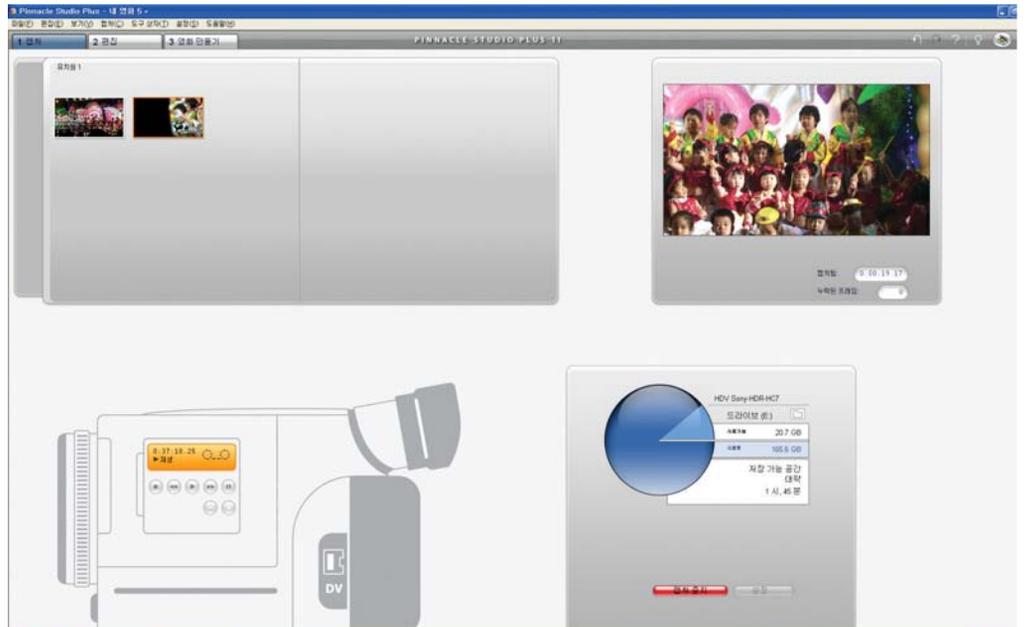
+ 임석태 · EBS 스튜디오중계영상팀

# 영상의 편집

편집은 보통 촬영보다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편집 프로그램 사용방법도 간단하게 익힐 수 있어 캠코더 유저라면 꼭 권하고 싶다. 캠코더에서 PC로 입력 할 수 있는 캡처보드(2~3만원), 편집 프로그램(20만원) 정도가 피나클(스튜디오 버전11)의 프로그램 비용이다. 요즘 나오는 버전12는 블루레이를 이용한 HD 디스크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림 1] 피나클 스튜디오 버전11

편집은 보통 촬영보다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편집 프로그램 사용방법도 간단하게 익힐 수 있어 캠코더 유저라면 꼭 권하고 싶다.

캠코더에서 PC로 입력 할 수 있는 캡처보드(2~3만원), 편집 프로그램(20만원) 정도가 피나클(스튜디오 버전11)의 프로그램 비용이다. 요즘 나오는 버전12는 블루레이를 이용한 HD 디스크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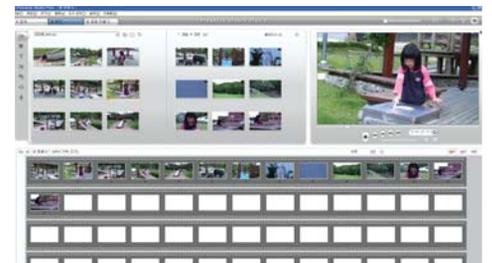


[그림 2]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서, 캡처보드와 카메라를 1394 라인 등을 이용하여 연결 후, 촬영 원본을 카메라에서 재생하면서 PC에 저장하게 된다. [그림 2]의 캡처 시작과 함께 [그림 1]처럼 영상이 캡처된다.



[그림 3]



[그림 4]

캡처가 끝나면 [그림 3]의 편집버튼으로 [그림 4]처럼 편집 모드로 전환한다. [그림 4]의 위쪽은 소스영상 아래쪽은 필름모양으로 편집영상이 된다. 위의 소스영상을 드래그하여 편집영상 쪽으로 옮겨서 편집을 시작한다.

## 커트 편집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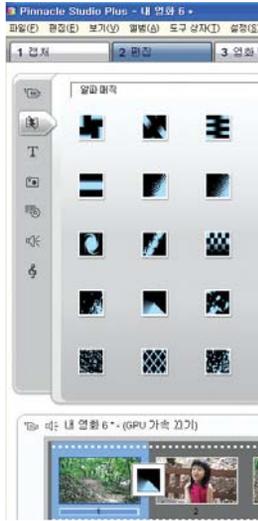
[그림 6]

[그림 5]는 편집 창에 소스영상을 드래그해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림 6]은 [그림 5]의 우측 상단의 커트, 자르기, 플 레이 창을 확대한 것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커트 편집은 편집 창의 원하는 그림 위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 재생하게 되면 [그림 6]의 큰 창에서 영상이 움직인다. 원하는 위치에서 정지버튼(재생버튼이 재생시 정지버튼으로 전환됨)을 누른 후 면도칼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커트가 된다. 보다 정교한 커트를 원할 때는 편집영상을 더블클릭하면 프레임 단위의 커트가 가능하다.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려면 면도칼 우측 아이콘인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으로 삭제한다. 그림을 재생하면서 필요한 것은 살리고 필요 없는 것은 지우면서 커트 편집을 진행한다.

## 장면 전환



[그림 7]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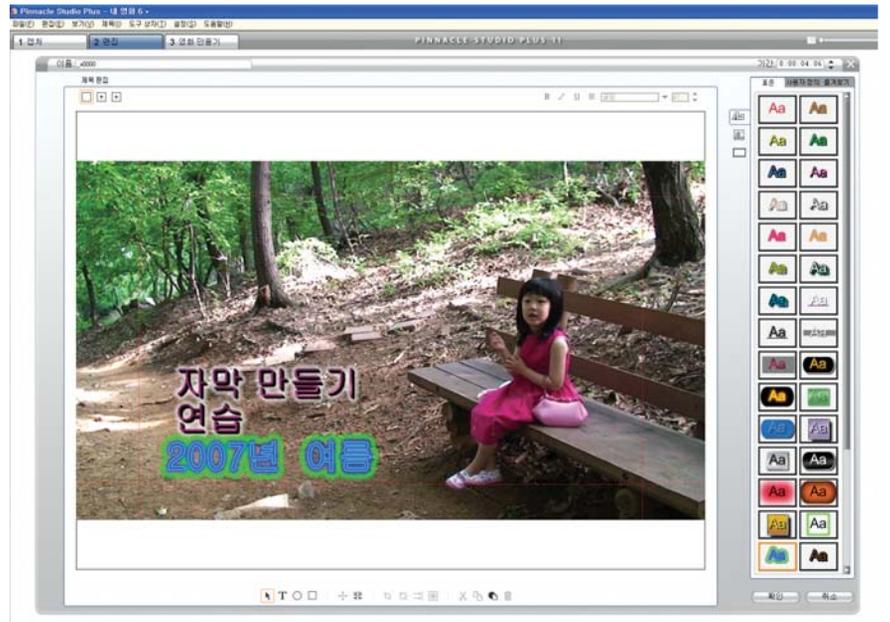


[그림 9]

장면 전환은 [그림 7]의 좌측 상단에 T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 가지 모양과 효과 등의 전환 아이콘이 나온다. 이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편집 창의 영상 사이에 위치해 놓으면 [그림 9]처럼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림 8]은 [그림 7]의 편집 창을 더블클릭 하면 나타나는데, 수동으로 전환의 길이, 시간 등을 지정해 줄 수 있다.

## 자막

자막 넣기를 원하는 프레임 창을 더블클릭하면 [그림 8]과 같은 창이 만들어 진다. 2개의 창 좌상단 T(타이틀)를 누르면 [그림 10]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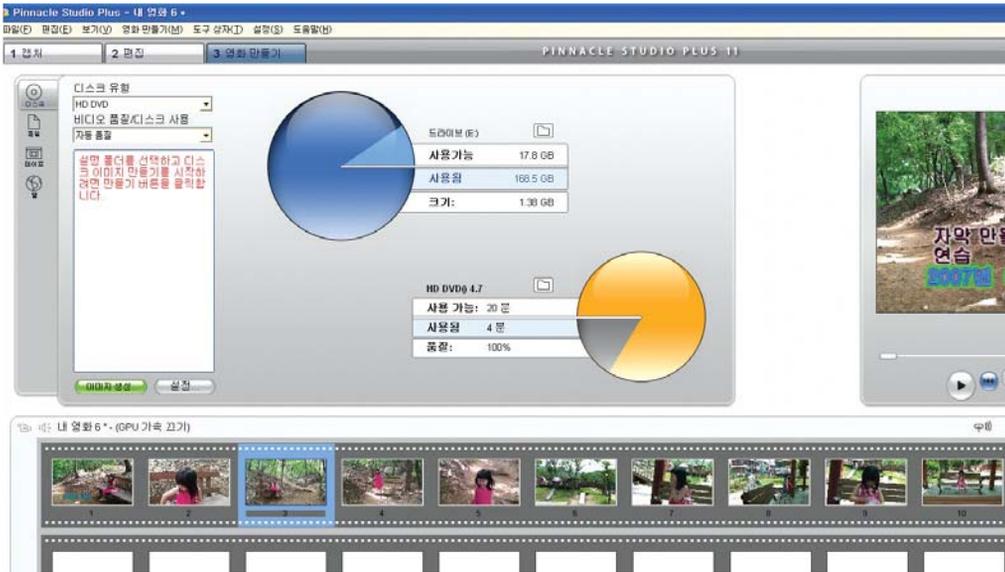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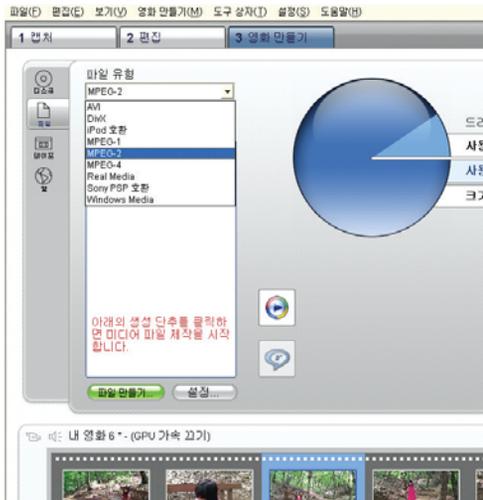
[그림 10]에서 자막이 들어간 것은 필자가 간단하게 연습해본 것으로 우측에 각종 색상과 모양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래쪽 T자 모양을 누르면 자막을 생성할 수 있고, 우측 상단에는 글자 크기와 자막이 들어가는 시간 길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ower User

임석태 · EBS 스튜디오중계영상팀  
+ 영상의 편집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오디오 편집 등이 끝나면 [그림 11] 상단의 영화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이곳에서 파일이나 DVD로 만들 수 있다. [그림 12, 13]은 영화 만들기 메뉴에서 각종 파일과 DVD 유형을 설정하여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한 스튜디오 편집 툴은 설명서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쉽게 되어 있다. 실제로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컷 편집이며, 컷 편집에는 영상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편집 방향**



[영상 1]



[영상 2]



[영상 3]



[영상 4]



[영상 5]



[영상 6]

[영상 1~6]을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영상구성이 되면서도 영상 편집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



[그림 14]

[그림 14]의 편집 창에는 [영상 1~6]의 순서대로 편집된 영상이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영상의 사이즈가 차이나도록 편집 창에 배치하는 것이 영상 편집의 기본이다.